

Petrobras, 상장 이후 사상최대 수익

2008년 1-9월 61% 증가 120억7000만달러 달해 ... 국제유가 급등으로

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가 상장 이후 최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
Economatica에 따르면, Petrobras의 2008년 1-9월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61% 증가한 265억6000만헤알(약 120억7000만달러)을 기록해 상장 이후 21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.

2006년 수익 229억2800만헤알(약 104억2200만달러) 기록을 갱 것으로, 9월까지 지속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.

2008년 3/4분기 수익도 108억5200만헤알(49억3200만달러)로 2007년 3/4분기 55억3000만헤알(25억1400만달러)보다 96%가 늘어나면서 분기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1-9월 미국 달러화 환율 기준으로 미주지역의 에너지·자원기업의 3/4분기 수익은 ExxonMobil이 148억3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Chevron Texaco가 78억9300만달러, 브라질 광산 개발기업 Vale가 64억9500만달러, Petrobras가 56억6900만달러 순을 차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11/13>